

# 강한 믿음과 실천으로 가금티푸스를 이겨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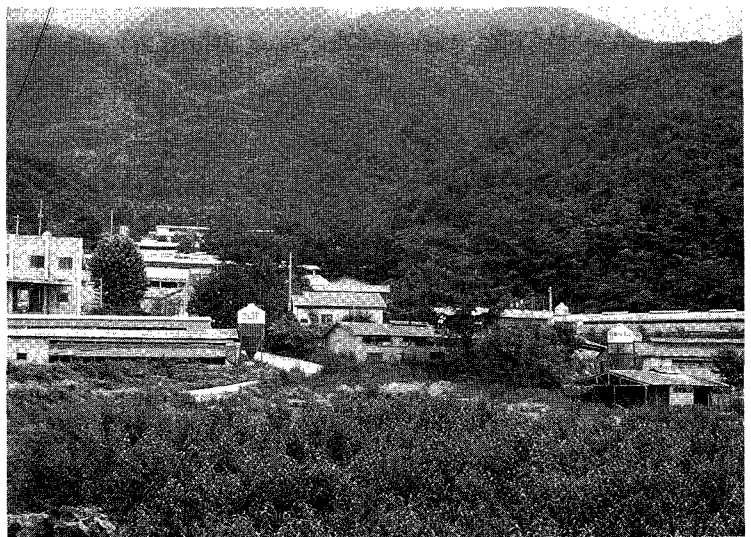
□ 취재/김동진 기자

지난 1992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가금티푸스는 약 7년이 경과한 지금 그 위세가 줄어들기는 커녕 가금티푸스를 경험하지 않은 농가가 없을 만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가금티푸스는 3월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11월까지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고 겨울에는 소강상태를 보여왔던 것이 보통인데 요 몇년간 겨울에도 발병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돼지 돈콜레라 예방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가금티푸스의 피해는 이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양계인들의 주장이며 본 기자가 파악하기로도 이대로 가다가는 채란업의 존망이 심

히 우려된다 할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차선책으로 백신계사육 권장과 생독백신 도입건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고는 가금티푸스를 3년

여동안 경험하면서 채란업 포기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는 채란업을 자신있게 경영하고 있는 한 농가가 있어 가금티푸스로 고생하고 있거나 경험한 농가들에게 참고가 될까하여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 기사내용 중 특정 제품이 거론



△ 경북 수덕산 중턱 해발 800m에 위치한 광신농장 및 주위 계사들 전경

된 것은 그 농가에서 있는 그 대로 알리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기사에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 1. 예외없이 찾아온 가금 티푸스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높게 솟아오른 수덕산 중턱 해발 800m에 위치한 광신농장(대표 정재용 39), 농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분무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출입하는 모든 차량들을 통제하는 등 방역관리에 신경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곳은 총 산란규모가 2만수에 16개 농장이 모여있는 집단촌이다. 1개농가(4만수 무창계사)를 제외하고는 1만수정도의 유창계사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이 이 양계장들의 특징이다. 본지가 방문한 광신농장의 규모도 12,000수로 재래식 계사에 A동 2,600수(110일령), B동 5,000수(환우계군), C동 4,300수(130일령)를 사육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산란계 농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이 마을은 지리적으로 자연과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고 암반수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사용하므로 양질의 계란 생



△ "이제는 양계에 자신이 생겼어요."라고 자신감을 보이는 정재용 사장과 부인 채숙기씨

산의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에도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금티푸스로부터 안전지대일 수가 없었다. 만약 질병이 한 농장에 유입될 경우 농장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각 농장마다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들이 서로 다른 경로로 구입되고 있었으며 공동 계분장을 통해 계분이 처리되다 보니 질병유입과 전파가 개인 농장들보다 노출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1994년 가금티푸스가 이 마을에 찾아왔다. 처음에는 3~4개 농장을 시작으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더니 3년내에 거의 대부분의 농장들이 이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물론 광신농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웃에서 4만수를 사육하는 무창계사도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나름대로 대처했으나 올해 발병이 되면서 이 마을은 100% 가금티푸스의 피해를 보는 수모를 겪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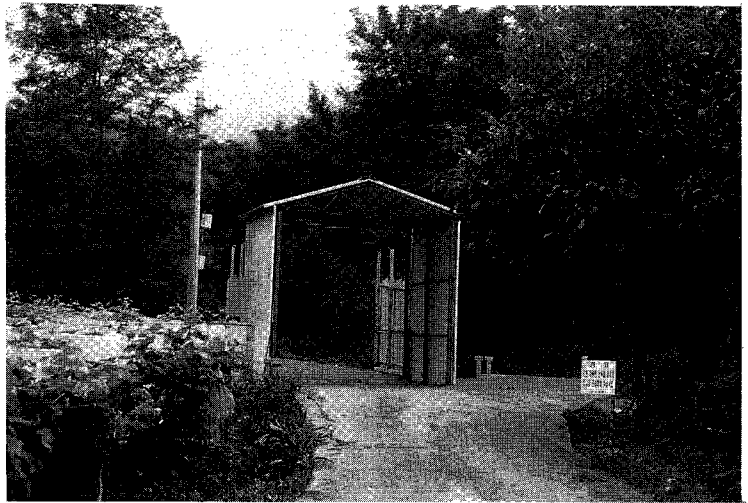
피해를 입은 농장들은 주사기가 손에서 떠날 날이 없었고 항생제 투여로 나날을 보냈다. 정사장의 경우도 휘발유에 폐사계를 태워가면서 왜 채란업을 시작했나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산란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도태를 시킨 농장이 있는가 하면 몇 달을 쉬면서 여러차례 소독을 시켰는데도 재 입주시 다시 발병하는 등 도저히 가금티푸스를 잡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광신농장도 항생제 투여가 최선인 것으로 믿고 겨우겨우 업을 이끌어 갔으나 폐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성적도 부진해 결국 자포자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말부터 국내에 몰아닥친 경제위기는 사료값 인상 등 원자재비의 상승으로 앞으로의 채란업 비전을 어둡게 하였다.

## 2. 가금티푸스 없는 농장으로 탈바꿈

채란업을 포기하려한 지난해 8월, 생균제인 나투포넌을 알게되면서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평소에 생균제에 대한 효능은 양돈쪽에서 발효사료와 톱밥을 섞어 먹였을 경우 설사가 멎는 다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고 특히, 메주균은 항암효과가 크고 된장을 끓여 먹어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사용하는데는 반신반의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승부를 걸었고 지금은 채란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준 계기가 되었다.

현재 74주령를 기록하고 있는 5,000수 계군의 경우 지난



△ 광신농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가금티푸스는 이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8월에 증추를 구입하여 사료빈에 나투포넌을 0.3% 비율로 섞어 꾸준히 투여하였으며 현재는 사료회사에 의뢰하여 배합비율을 맞춰 급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폐사율도 3%(자연폐사)로 현저히 낮아졌고 산란율이 94%까지 증가되었으며, 90% 이상을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물론 가금티푸스 증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확신을 갖기 위해 시험적으로 78%의 산란율을 기록하는 71주된 계군에 대해 환우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13일을 절식시키고 6일째 들어선 상태에서 자연폐사(탈홍 등) 이외에는 폐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케이지를

부러뜨릴 정도의 왕성한 활력을 보이며 건강함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정기적으로 검진해오고 있는 수의사에 의뢰하여 부검한 결과 간, 비장, 대장, 콩팥, 수란관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우가 끝난 계군중 폐사계를 정사장이 직접 확인한 결과도 티푸스를 경험했을 때는 비장이 커진 것을 확인했었으나 지금은 예전과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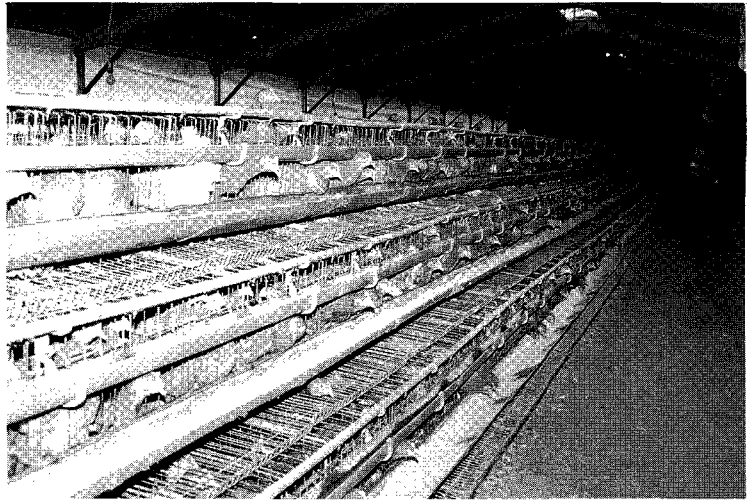
즉 이 생균제가 면역성을 증가시켜 대장균증과 살모넬라에 대한 방어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는 것을 정사장은 터득할 수 있었고 병아리때부터의 건강한 증추 육성의 중요성을

건강한 중추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란율 향상, 탈색란 방지, 난각강도 증가 등을 통한 사료비 절감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그외 부수적으로 경험한 효과는 농장에 신경을 덜 써도 닭 자체가 튼튼하니 여유시간이 많아졌고, 계분냄새가 덜나고 계분에 수분 함유량이 적어 양질의 계분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들려주었다. 따라서 현재 110일령된 2,600수 계군은 초생추때부터 중추육성까지 중추농장에 나투포멘을 0.3% 섞어 급여하도록 계약을 하여 육성한 계군을 사육중에 있다.

130일령된 4,300수 계군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경우 마치코팅을 한 것처럼 계란이 적갈색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계란상인들의 호응이 좋다. 나투포멘은 가격도 싸 1만수 규모에 월 24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농가에도 큰 부담이 없다는게 정사장의 말이다.

### 3. 상품성 있는 계란 생산에 자신감

정사장은 실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 말을 믿으려드는



△ 초생추때부터 생균제로 기른 닭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

사람이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과거 생균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거부반응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가끔 티푸스로 인한 채란업의 퇴보를 바라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주위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나투포멘은 치료제가 아닌 예방제이기 때문에 결코 단시간내에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초생추때부터 강하게 키워 저항성을 키워주고 질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나투포멘 자체가 그 효과가 확실한 것은 사실이나 사료, 물, 병아리 등 기타 제반 여건들이 함께 충족될 경우 질병으로부

터 완벽할 수 있음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급이하면서 파생되는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설명하였는데 소독을 하지 않니까 닭에게도 스트레스를 덜 주는 역할을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자보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을 담당할 것이며 상품성 있는 계란생산으로 더 나아가 계란 소비증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제는 양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정사장은 1년간 꾸준한 계획성을 세워 실천을 하는 농가는 가끔 티푸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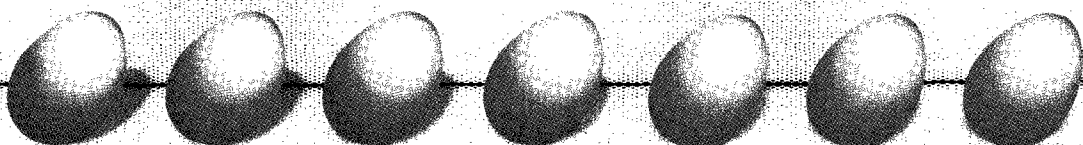
질병의 시작은 약한 닭에게 호흡기, 대장균증, 콕시듐증 등 합병증이 오면서 증세가 더욱 악화될 경우 가금티푸스로부터의 저항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닭에게 아무리 좋은 처방이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질병방역 대책을 기본으로 사양관리,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경우 효과를 거두기 힘들며 이미 감염된 계군은 약품비만 더 들어가게 된다. 정사장 주위 농장들도 제품의 정사장 주위 농장들도 제품의 효과를 인정하고 나투포

멘의 사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에는 100여종이 넘는 생균제들이 시장공략을 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메주균의 특성을 살려 창진곡산에서 나투포멘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투포멘은 콩을 주원료로하여 3일간 숙성과정을 거쳐 생산이 되는데 이 제품을 출시한 지 겨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 60톤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의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판매량의 90% 이상이 채란계에 사용되고 있으나 육계, 종계는 물론 타축종인 돼지, 소 분야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사장은 가금티푸스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시작해도 1년이 늦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 말하고 양계인들의 의지와 실천을 강조하였다. 정사장의 강한 의지가 현재까지도 한 단지내에서 근절되지 않고 가금티푸스가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인지도 모른다. (문의 전화 0547-435-1423) 양계



## 쌀멧에 납품하는 풍년 집란 벨트



**공장 연락처**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39-12

TEL : 02)2249-1085

H.P : 011-894-8481